

상업적으로 성공한 정보 다양하게 선보여

Online Information Meeting은 명실공히 콘텐츠나 정보 산업 부문에 있어서 세계 최대의 전시 이벤트이다. 금년도로 22회째 맞는 Online Information Meeting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가 국내관련 업계의 종사자들과 함께 수년전부터 매해 참관단을 파견하여 온 국제 전시 및 컨퍼런스이다. 국내 경제가 어려워 부득이 참관단은 구성하지 못하고, 마침 영국의 DTI(Department of Trade & Industry) 방문 계획이 있어 일정을 Online Information Meeting 개막일에 맞추었다.

이창한/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연구조사부 부장

전시 첫날 여느 전시와 마찬가지로 전시 참관자의 행렬이 Olympia 컨벤션 센터 건물 주위로 길게 늘어섰다. 서울을 떠나기 몇일 전 인터넷에 사전 등록을 하여 무료 Fast track admission을 받은 터라 줄을 서지 않고 바로 전시장에 입장할 수 있었다. 전시 공간은 Ground Floor, 1st Floor, Gallery 등 3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전년도 보다 더욱 규모 있는 행사로 진행되었고, 컨퍼런스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부속 건물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싱가포르 국립 컴퓨터국 부소장 Thomas Yeoh의 "싱가폴: 인텔리전트 섬- 세계적인 모델인가?(the Intelligent Island - Is this the global role model?)"라는 주제의 개막 연설을 시작으로 진행되었다.

여기서 Yeoh 부소장은 국가적인 정보 기술의 비전을 갖기 위해서 훌륭한 인프라스트럭처 이상의 무언가가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사업자, 정부 및 소비자 등 3자간 정보 기술의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싱가포르 정부의 계획을 소개하였다.

이어서 이번 행사의 의장인 David Raitt는 상대적으로 매우 짧은 시간에 어떻게 웹이 사람들을 정보 소비자로 변화시켰는지 향후의 새로운 정보 소비자는 누구인지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두 사람 모두 정보 통신 산업의 미래는 단지 정보 기술의 발전에만 의존할 수 없고 정보 자체, 즉 콘텐츠의 원활한 유통이 진정으로 중요하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사실 이번 22회째 온라인 인포메이션 미팅의 전시를 개관하면, 여러 정보 부문중 비교적 그 구축 체계가 잘 갖추어졌으며 상업적으로도 성공적이라 할 수 있는 세일 및 마케팅 정보 부문, 건강 약학 정보 부문, 회계 재정 정보 부문, 투자 증권 정보 부문 등 소위 'information rich' 정보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주제 전시를 하였다. 또한 최근 국내외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법률 및 정부 정보 부문, 지식 관리 부문, 과학 기술 및 의학 부문, 디지털 출판 기술 부문 등도 동시에 주제관으로 전시되었다.

이러한 각 주제관들은 전시 사이트마다 주제 트레일을 표시하여 관람하기 편리하게 배려하였고, 각 주제관의 제

품 발표나 주제 발표를 위한 Expo장이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전시장의 열기를 더하였다. 전체적으로 참여한 업체 수가 300여개처 이상으로 주말간산으로 보아도 하루가 다 지나갈 형편이라 필자 개인적으로 공공 부문 정보에 관심이 있어 정부 및 법률 주제관을 중심으로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ASLIB(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Management)은 70여개국의 2천개처 이상의 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이번 전시에서는 영국내 정보원 디렉토리(제 10판)을 선보였는데 3,500개의 email주소와 3,200개의 웹 사이트 주소를 간략한 소개 기사와 함께 수록하였다.

또한 신제품으로 영국 정부의 공식 간행물의 속보 서비스인 BOPCAS(British Official Publications Current Awareness Service)를 선보였다. 이외에 One Stop Information Shop, Internet Publishing 등이 시연되었다.

BL(British Library)은 올해초 종합 속보 및 기사 주문 서비스 시스템으로 개발된 inside, 도서관 카탈로그의 서지 사항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OPAC 97과 Catalogue Bridge 등을 선보였으며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장서량을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중의 하나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소장 자료를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Chadwyck-Healy는 영국의 참고 정보중 가장 일반적이고 자주 활용되는 정보원을 온라인 시스템으로 서비스하기 위한 KnowUK 서비스를 신제품으로 소개하였다. 여기에는 Faber Poetry Library, W.B. Yeats Collection, Digital National Security Archive, Historical Index to the Newyork Times 등 문학 작품에서 신문 기사까지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Companies House는 영국의 기업 등록 정보를 일별로 갱신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1996년도에 민영화하여 다른 전문 기술 분야의 정보 서비스에도 진출하고 있다.

Context는 영국의 법률 정보 파일인 Justis UK Statutes와 법률 정보 검색 소프트웨어인 Justis Link를 신제품으로 선보이고 있다. 특히 Justis UK Statutes 파

일은 개정중의 법률과 기존 법률간에 상호 참고가 가능하게 구축되었으며, Justis Link는 일반 문서와 Justis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할 수 있으며, 판례 정보와 법 문항을 링크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Derwent사는 의학 분야의 특허 정보를 웹상에서 제공하는 Derwent Discovery를 선보이고 있으며, 기존 Patent Explorer와 모든 산업 분야에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비즈니스 솔루션들을 재설계하여 소개하고 있다.

EBR(European Business Register)는 언어, 기술 및 입법의 차이에 따른 장벽을 줄이기 위해 서비스 브로커 시스템 연계 개념에 기반하여 유럽 전체의 국가별 공식적 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PMS bv/ELLIS Publications사는 유럽 연합의 공식 문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유럽 연합측과 라이선스 계약에 의거하여 서비스하고 있는데, EC 법률 파일인 OJCD, 유럽 경쟁력 관련법 파일, CE 마케팅 정보 CD, 유럽 물질 CD, 유럽 의약 정보 CD, 유럽 교통 정보 파일 등 유럽 전반에 걸친 대부분의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FOI Services사는 미국의 식품 의약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정보를 원문 제공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 정보는 의약 기기, 약품 및 생명 공학에 관련된 규제 및 승인에 대한 정보를 취급하고 있다. 전달 매체는 하드 디스크는 물론 온라인 및 CD-ROM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수행된다.

Genios GmbH는 시장 및 산업의 사실 및 수치 정보, 시장 및 경쟁사의 모니터링 정보, 2백만개처가 넘는 기업 정보 파일, 1.5백인 이상의 인물 정보 등을 선보이고 있다.

Stationery Office는 과거 HMSO(Her Majesty Stationery Office)가 민영화한 기업으로 기존 정부 기관 시절부터 관리하여 서비스하여 온 정부의 공식 간행물 서비스를 중심으로 소개하였으며, 민영화한 이후 영국, 유럽, 미국 및 일본의 의약 정보인 Pharmaceutical, TICTAC 약품 식별 정보, 건강 안전 정보 등 전문 정보 서비스 부문에도 사업 확장을 하고 있다.

ASEC International Inc는 데이터 가공 전문 업체로

서 기업의 정보를 복잡한 색인 및 초록, SGML, HTML, XML, 코딩 등 데이터 입력 대행하거나 미디어 변환 등을 상품으로 출시하였다. 동남아, 인도 등 비교적 저렴한 영어 사용권 지역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타사에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 스페인의 ASEDIE, 프랑스의 La Documentation Francaise, 일본 DPC 등 해당 국가의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기관의 대표적인 공공 기관이 참여하여 자국의 데이터베이스 산업 등에 대하여 홍보를 하였다.

이상 정부 및 법률 전문 주제관의 업체와 신제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관련 브로셔 등을 수집하여 왔으므로 보다 상세한 정보나 해당 웹 사이트의 주소를 원하면 필자에게 연락하기 바란다.

이번 전시를 통해 몇가지 주목해야 할 점을 정리하면, 우선 공공 부문 정보가 정보 서비스 상품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정부 조직이었던 Stationery Office, Companies House 등은 심지어 민영화라는 극단적인 과정을 거쳐 공공 부문 정보의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며, Dialog사를 통하여 해외 협력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Overseas Cooperation Office는 영국의 정부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유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홍보 마케팅을 위하여 전시자로 참여하고 있다.

Overseas Cooperation Office의 홍보 담당자에게 "정부 기관이 어떻게 유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당당히 "이용자들에게 고품질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유료화하여 서비스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민간 부문중 정부 및 공공 관련 정보를 서비스하는 기관에게도 "정부 혹은 공공 부문 정보 파일의 수치 타산이 맞는가"라는 질문에 담당자들은 한결같이 "상업적으로 성공적이다"라고 대답하고 있다.


공공 부문의 정보를 공공 부문이 서비스해야 하는가, 민간 부문이 해야하는가 혹은 양 부문 모두가 각자의 특기를 살려 해야하는가라는 논의에 앞서 정부 및 공공 정보가 상업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정보 서비스 매체의 경계가 더욱 모호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정보가 출판물, 온라인, 웹, CD-

ROM 등으로 다중 매체를 활용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많은 정보 기술들이 콘텐츠의 구축과 유통을 지원하고 있음이 눈에 확연하게 드러난다.

기존 정보 통신 산업의 분류라고 하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정보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상례인데, 모든 정보 통신 산업은 향후 콘텐츠 산업으로 대체될 것이며 그 안에서 콘텐츠의 생성, 콘텐츠의 분배, 콘텐츠의 접근 등으로 재조정될 것이라는 EC(Europe Commission)의 예측 보고서를 더욱 실감할 수 있었다.

해가 갈수록 정보 서비스 산업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적절히 연결하며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과거의 인쇄 출판이 전자 출판으로, 현재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가 인터넷 웹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미래의 지식 사회, 사이버 사회에 적응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보 기술은 단시간에 개발되어 우리 생활 환경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콘텐츠 산업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다. 계속 다가오는 우리의 현재를 알맹이가 있는 과거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활기찬 미래는 기대할 수 없다. 런던 Royal Drury Lane 극장에서 8년전이나 지금이나 왜 똑같은 뮤지컬이 계속 상연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때이다. 

 Online
information 98

National Hall & Olymp
London, UK
8-10 December 1998

Sponsored by

Sole national media spons

Information World

THE  TIM